

이번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우리우유가 언제라도 북한동포에게, 특히 절대 영양섭취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우리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남쪽에 있어서 남아도는 우유가 자기들에게 공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행여 그네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면 우유라는 매개를 통해 박애정신을 실천코자 하는 우리들의 의도와 우유의 가치는 반

감되기 십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귀한 먹거리를 가지고 과시용이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는 성숙되지 못한 생각일 따름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애뜻한 정이 다행히도 우리에게 는 가능하다.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함이 타당하고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성경말씀처럼 이번 운동이 차분한 가운데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은 우리미래를 위한 사랑의 실천

날로 어려워지는 낙농현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낙농을 지키고 있는 모든 낙농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정곤
경남도지회장

우리의 낙농현실은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낙농인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순리대로 차분히 해결해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핫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통일 및 남북협력을 위해 물자지원 등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인도주의를 넘어서 한 민족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 보건의료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상태와 체격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들의 고른 성장과 체위향상이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는 영양공급의 불균형과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체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습관과 기호도가 대부분 어린이 시기에 형성되어 일생 동안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마시는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114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완전식품으로 영양소의 흡수, 이용률이 높고, 특히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기에 이상적인 식품으로서 우유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우유(분유)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유의 규칙적인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 어린이들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고른 성장과 체위향상이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통

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차원의 우유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낙농가들부터 북한 어린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우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우유의 유익함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 정부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낙농인들의 참여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서 대북 우유지원을 위한 정책적 반영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유가 제2의 식량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낙농업이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낙농업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아이들도 넓게 본다면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고, 우리 미래의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될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건강은 곧, 우리들 미래의 건강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우리남북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